

새/해/인/사

JTN방송과 본지를 구독해 주신 존경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대망의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한국교회가 영성회복운동이 일어나 부흥하고 성장하는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저의 신문방송은 전국 9개 지사와 해외 9개국 지사와 힘을 합쳐 보다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나 말씀과 기도, 감사를 잊어버린 악한세대, 정치도, 경제도 타락되어 악한 음녀의 길로 달려가는 이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의 펜을 들고 교계 정론지로서 사명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서선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복음지로서 응급진 잣대로 펜촉을 감고 뒹을 것입니다. 2010년 새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발행인 정기남 목사 외 직원 일동 배상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사60:1)/신화자 포토기자

사설

사상 첫 原電 수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확정됐다. 원자력 발전소를 사상 첫 수출로 전 세계에 한국형 원전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줬다. 직접 건설비용이 200억 달러 등 달러, 폐기를 시설 설치 등 후속부분이 200억 달러 등 총 400억 달러(47조원)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의 6분의1에 해당한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일궈낸 이번 쾌거의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1959년 연구용 원자로를 첫 설치한 이후 원자력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온 지 50년만에 비로소 원자력 수입국에서 명실상부한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 원자력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과학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셈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최첨단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력 선진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승리를 거둬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국제 원전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 또한 평가할 만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향후 20년 간 전 세계에 300~400기의 원전이 건설될 것이라 한다. 시장 규모는 1000조원을 넘는다. UAE 원전 원전 수출을 계기로 우리의 추가 원전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돈독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UAE를 전격 방문해 원전 수주활동을 지원한 이명박 대통령(장모)은 "원전 등 플랜트 산업은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잠재력이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전이 제3의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형 원자력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터키와 요르단 중국 등에 원전 수출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에 날아온 UAE발(發) 낭보가 2010년 새해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길 목사 'NGO를 통한 교회사역에 혼신을 강조'

예장 합동 '해피나우' NGO 미션 세미나 열어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NGO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 사역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NGO 해피나우대표회장 김성길 목사가 청립 두 달 만에 첫 세미나를 열고 한국교회의 NGO 사역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해피나우는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 시온소교회에서 제1회 NGO미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교회가 NGO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NGO 사역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NGO 사역 사례 발표 등 교회를 위한 NGO 사역 방법론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회장 김성길(시온소교회)목사는 "성경적 원리, 교회의 사명, 국가 정책 대응, 선교적 관점에서 NGO 사역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가진 교회는 NGO 기능과 공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NGO를 통한 교회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사역이 종교성으로 머물러 있다는 외부 인식



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NGO와 자원봉사'를 주제로 강의한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김동수 초빙교수는 "교회가 NGO인가"라고 물으며 "아닐 수도, 훌륭한 NGO가 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일반 사회나 NGO들은 교회가 하는 일을 공익이 아닌 종교적 목적으로 이해한다"며 "NGO는 시민 사회단체이기에 NGO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를 공공성이란 말로 설명했다. 교회의 활동이 NGO와 비슷한데 이를 사회 속에서 인정받도록 하려면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교회의 사역이 사회 속으로 적절히 스며들 수 있으며 진정한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원영 사무총장은 'NGO 사역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총장은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도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대



▲해피나우는 17일 경기도 수원 시온소교회에서 제1회 NGO미션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안으로 교회 내 NGO사역위원회나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제시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은 복지 사업을 실현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간 연대를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개발해 NGO 단체를 선도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위한 'NGO학교' 운영도 제안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봉사의 길을 만들어 교회의 축적된 역량을 외부로 표출하자는 것이다. NGO 학교 운영에는 전문가 초빙 강의, 자원봉사자학교 참여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웨신) 웨신총회2010신년하례



총회장 **성흥경** 목사



부총회장 **이홍규** 목사



서기 **김춘택** 목사



부서기 **조광표** 목사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



부회록서기 **고영전** 목사



회계 **허성인** 목사



부회계 **정일량**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



감사 **전현구** 목사



감사 **이일영** 목사



감사 **정창갑** 목사

2010년은 교단과 노회 지교회가 부흥성장하며 축복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주제: **화합과 일치로 꿈을 이루어 가는 웨신총회**
 장소: **온누리 웨딩홀**

(역곡역하차 남부역 방면 1번 출구, 좌측 100m)

부천시 소사구 과안동 118-2 ☎031)343-5955

날짜: **2010년 1월 4일 오전 11시**



웨신총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835-2607 팩스 02)835-2628 E-mail: weshinch@korea.com

www.웨신총회.net

남북자 송환촉구 및 가족위로예배

(사)한국미래포럼 주관으로 진행된 남북자와 국군포로에 즉각적인 송환과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가족위로예배가 지난 12월 15일 오전 11시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있었다.

고용남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는 “고통과 불면의 밤이며, 물러가라!”는 위로의 시를 낭독하고, 신명법 장로(한국평신



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더 이상 국군포로도 남북자도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504명의 남북자와 750명의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반적인 납치를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남북자문제,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 직속으로 대책

기구를 설치하여 이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일이 돈을 주고 정치범을 생환시킨 프라이카우프(Frikauf, 자유를 산다는 의미) 방식과 같은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6자 회담을 위시한 모든 북한과의 대화에 남북자 문제와 국군포로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특별히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남북피해자 지원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기본책무에 속하는 만큼 정부는 남북자 가족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한국전쟁이후 5백4명의 납치자와 750명의 생존, 국군포로가 아직 생환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한국으로서의 그동안 남북자 문제와 국군포로문제에 대해 너무도 단일한 대응을 해온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중국에서 납치된 안승훈 목사,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날의 인이한 대처를 반성하면서 국군포로와 남북자들의 생환을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

다. 나아가서 미확인 납치자와 송환되지 않은 납치자의 송환을 위해 일본정당(신일본교)의 특송이 있었으며, 이강평 목사(서울기독교대학 총장)는 “화해의 지혜”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춘규 장로(미래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의 성급, 최성용 대표(남북자가족모임)가 전달하였으며, 김은태 목사(한기총 총무)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지 덕 목사(미래포럼 명예총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김춘규(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갖고 유기남(자유시민연대 대표, 최성용 회장(남북자가족모임)의 인사가 있었다. 아울러 이연순 사모(남북 안승훈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

남북자와 국군포로에 즉각적인 송환과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1997년 일본인 메구미 요코타라는 여인이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일본 안에서 송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일본정부는 17명의 납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중 5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교단 단체총회 창립예배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총연합회(KCCI)가 새롭게 발족되어 지난 12월 14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교단 및 단체총회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각 교단과 단체 126개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피종진 목사(남서울총양교회)를 총재로 추대했으며, 대표회장 백종대 목사, 이사장 이 선 목사, 사무총장 남종석 목사를 각각 추대했다.

이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총연합회 교단, 단체총



회가 출범 하였으며, 부정부패로 얼룩져 추락하고 있는 몇몇 연합단체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새롭게 출범한 본 단체에 많은 교단과 단체가 가입할 것을 확신한다면서 부정부패가 없

는 투명한 단체 하나만 보시기에 합당한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상임회장 홍성선 목사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고, 상임회장 이복재 목사가 기도를, 공동회장 전하라 목사가 성경봉독, 임마누엘 중창단의 특송과 상임회장 김연선 목사가 “상합의 은택”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사장이 선 목사의 진행 및 임원보고가 있었으며, 대표회장 백종대 목사가 본 연합총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자문위원 신웅근 목사의 격려사와 상임회장 육옥수 목사, 지도위원 강기원 목사 등이 축사를, 사무총장 이용철 목사의 광고를 끝으로 지도위원 이승대 목사 축도로 마쳤다.

사랑과행복나눔 ‘SO HOT, SO HAPPY’ 이번엔 쌀



▲ ‘So hot, so happy’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

전국의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나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 사랑과행복나눔(이사장 조용기 목사)에서 이번에는 쌀 나누기를 통해 훈훈한 사랑을 전했다.

(재) 사랑과행복나눔은 17일 서울 도봉구 지역에서 도봉구지체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해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So hot, so happy’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해 도봉구지체장애인연합회, 도봉구시각장애인협회, 서원종합사회복지관, 요셉의 집 등에 총 500포(20Kg)의 쌀을 전달했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17일 오전 11시 도봉구지체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으로 시작됐다. 전달식에서 인사말씀을 전한 박수철 목사(재단 대외협력부장)는 “이번 행사의 특징은 불교 재단과 가톨릭재단을 초월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이라며 “은퇴하신 후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본분은 무엇보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 도봉구지체장애인협회 이탁송 협회장은 “지금까지 협회에서 쌀 나누기 행사를 8차례 진행해오며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는데, 재단의 후원으로 반듯없이 구축구축 나누어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시원 소외된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영하 10도까지 폭 떨어진 날씨에도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해 쌀을 나르며 맑을 흘리는 모습은 쌀을 받는 시설들에게도 전해져 훈훈한 행사가 되었다.

이날 쌀을 전달받은 도봉구시각장애인협회 반명숙 대표는 “장애인들이 받는 것



▲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말씀을 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

너무 감사하다”며 “장애인들 중 생활고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밝혔다.

16년째 요셉의 집을 홀로 운영하고 있는 김옥순 원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 버려진 노인들을 찾아 임종할 때까지 씻기고, 입히고, 재우며 편안히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한 사랑을 사랑과행복나눔재단에서 나누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로 참여한 정철선 권사는 “재단이 생기면서부터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랑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봉사에 참여하지만 오히려 사랑과 행복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 기쁨으로 봉사를 가장 우선으로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 사랑과행복나눔은 월동행사인 ‘So hot, so happy’ 행사로 11월 27일 500개 가정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으며, 12월 15일 강원도 원주 재개발지역 104개 가정에 연탄 3만 2천여 장과 12개 가정에 연탄보일러 교체공사를 실시했다.

강신숙 목사 세 및 미자립교회 돕기 열매콘서트 가져...

- 기독교연예인 부흥사 유니버스 성가음악기념
- 강신숙 목사 열매콘서트(21집)

기독교연예인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는 지난 12월 23일 오후 CTS아트홀 대강당에서 성가음악 21집을 기념하는 열매콘서트를 갖고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아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를 초청 성금을 전달할 세모에 보람된 사랑의 콘서트가 되었다.



▲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 21집 음반 출판 열매콘서트 기념촬영

이날 김사과 목사 성시남동 CD 음반기념과 부흥사 유니버스 음반기념을 축하하는 감사 전양제가 열려 많은 동역자와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는 음반 21집 출판, 음반제작 복음가수 양성, 5000여회 집회지역 30년, 가스펠 자비량 콘서트, 선교사 돕기, 예술노회장 역임, 강신숙에 예술문화신학원장, 사문지구촌에술교회담임을 맡고 있다. 아울러 (사)한글사랑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이제 경조사는 웰빙토탈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운구에서 장지까지

남의일로만 생각했던 장례절차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때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한 준비로 큰 안쪽을 드리겠습니다.
(주)금호상조는 관혼상제(장례문화, 결혼문화, 잔치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격 현실화와 고품격 서비스로 예약 및 행사를 대행해 드리는 전문회사입니다.

일 반 형 20,000×120회=2,400,000원
고 급 형 30,000×100회=3,000,000원
최고급형 40,000× 90회=3,600,000원
VIP형 50,000×100회=5,000,000원



직 원 모 집			
직 책	인원	자 격	보 수
지점장	0명	관리(조직)능력자	기본급+관리수수료
팀 장			영업수수료+각종 행사비
상 조	0명	무경험가능 30-50대 (보통경력자 교수역)	기본급(관리비)+영업수수료
설계사			각종 행사비
지 사	0명	회사규정 심사	영업비+관리수수료+ 각종 혜택 등 지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대기중입니다.



관혼상제 토탈 웰빙 서비스-

(주)금호상조

전국(대표) 1566-4428

홈페이지 : khsangjo.com

장례 행사 진행 절차

갑자기 타친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갑자기 타친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가입 고객 전산입력 금융결제원 고객충증거래 신청

(주)금호상조중서 및 약관발급유원발송 7-15일 소요

월불입금×100회=계약금액회원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월불입금×120회=계약금액회원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임종시(주)금호상조로 전화접수 고객센터 전국 1566-4428

상황접수 회원조회 고안성명 및 병원확인

장례지도사 현장 파견

장례용품 제공, 고인사신수습 및 반소, 연, 유족과의 종료, 기공에 따라서 알맞는 행사 진행

염습 및 입관, 제사 및 종교의식 진행

발인제시간에 맞추어 장의차 배치, 장지로 출발 안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금호상조 가입혜택 종료

당사 대행 업무

• 공원묘지 알선 • 묘지 이상 • 식물 및 조경 • 풍수지리
• 산업인부 • 여지알선 • 꽃장 • 화환 • 도시락 등



(주)금호상조

1566-4428



“웨신 총회장 신년사”

꿈과 희망찬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희망과 용기 넘치는 한 해가 됩시다. 항상 그러했듯이 올 한해에도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찾아올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기회로 받아들이니다.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갑니다. 꿈은 용기 있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웨신총회 여러분은 꿈과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린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총회가 이 시대를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세상에 나누어줄 축복을 담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분담하리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총회를 향하여 어떻게 배려하고 참여해야 하는 지를 아직은 배워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내하면서 자신의 편견과 입장보다는 전체의 조화와 상황을 먼저 고려하며 우선보다는 나중의 형편을 살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창대케 될 때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그 자화상이 완성되었을 때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현재의 자신을 세팅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총회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잘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회현장과 총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성에 호환하는 헌법과 규칙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교단의 중흥의 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1천 교회...3천 교회 목표에 부합하는 명분과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차근차근 영입하는 일을 주밀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한방에 대박을 보거나 몸집을 불린다는 생각보다는 비록 눈에 크게 띄지 않아도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아가는 심정으로...착실하게, 꼼꼼히 교세확장을 도모해 나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작지만 크고 강한 총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웨민대원 대학교와의 상호협력적인 상생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발전을 위하여 총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웨민신대원 대학교가 일류의 신학캠퍼스가 되도록 기독교로 돕고 관심과 후원의 손길,협력의 발걸음이 우리 총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웨민대원을 사랑하고 애끼고 돌보는 마음가짐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단장된 총회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합니다. 각 노회와 상비부,개 교회와 회원들이 총회와 유기적으로 정보와 자료를 나누며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와 경험들을 공유하게 될 때 총회는 다채롭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개인 아이디만 붙이게 되면 전용메일이 됩니다. 온라인 연결망을 통하여 공지사항이나 서류 발급 등 시공을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총회의 브랜드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협력해서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나갑시다. 굳건한 반석위에 서 있는 총회로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합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축복을 나누는 일들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목회현장의 부흥과 함께 총회가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2010년 1월 4일 총회장 성흥경 목사



민족복음화중앙본부 부흥강사단 창단예배 드려..

을교회(전희종 목사)에서 교계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본부장 라계동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부총재 홍주표 목사가 기도,여성강사단장 조명숙 목사가 성경봉독,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이사장 이능규 목사가 선포했다.

이어서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부총재 송미현 목사, 국가의 안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부총재 우광순 목사, 민족복음화중앙본부와 강사단을 위하여 부총합의 회회장 정용석 목사 등이 특별기도에 나섰다.

아울러 중앙본부 사무총장 정병두 목사가 본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부총재 박철규 목사의 축사와 총강사단장 전희종 목사의 임명패 증정과 인사를 끝으로 부총재 정진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靑, 청와대 예배 논란에 “대통령도 신앙생활의 자유 있다”

최근 불교계 언론 보도로 불거진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내 주일예배에 따른 종교편향 시비’와 관련 청와대가 “대통령도 한 분의 개인으로 종교적 신앙생활의 자유를 갖는 분”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서 목회자 초청해 예배 보지 않겠다”고 한 약속 깨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8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밝힌 후 “평상시 일과 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도록 보장된 일요일, 업무 외의 개인적 신앙생활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모두가 알 정도로 떠들썩하게 한 행사도 아니고, 어렵게 취재를 해 알아낼 정도로 비밀이 지켜지는 행사인데 자칫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대통령은 최근 불교행사에 참석해 불교 인사들과도 많은 교류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예배를 드린 것이 지난달 24일 불교계 언론에 의해 보도됨으로써 ‘종교 편향’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함이었다. 한편 이 언론은 이번 예배 자체에 문제를 삼기보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을 더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16일 청와대로 김진홍 목사를 불러 예배를 본 사실이 밝혀져 종교편향 논란이 일자 같은 달 30일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목회자를 초청해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있다.



“기적과 축복의 2010년”

2009년의 은혜의 해가 지고 201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욱더 무릎으로 말하고 무릎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무릎 꿇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과 축복의 2010년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JTN방송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서울예복교회)



“새 역사를 이룩하자”

구름이 끼고, 어두움이 대지를 덮었던 2009년을 뚫고 동녘에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함처럼 대망을 품고 2010년의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밝아오는 새해에 지저스 타임즈가 반목과 대립 그리고 분쟁과 분열이 난무하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햇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리아 붐」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잡아 학살하는 것을 보고 화란사람으로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독일 강제 수용소에 온 가족이 수용되었다가 동생, 부모 등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독일에 감당에 가서 용서에 대하여 증거하고 내려 왔는데 자기를 발가벗기고 갖은 고문하던 사람이 악수를 청하더라입니다. 너무 당황하여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가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 손을 내밀라”하시더라입니다.

우리 모두 2010년을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서로 서로 잡은 손으로 모든 추위와 역경을 능히 이겨내는 새 역사를 이룩합시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된 한권의 책이다(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의 통일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상징과 예표와 모형으로 예언하며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구속자로 말하며,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묘사하고,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으로 계시한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여 요한 계시록의 마칠 때까지 일만세계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동맥이라는 구속사가 시작과 진행과 종결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골 1:1-2).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밋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고 확증했다.

이 성경은 위대한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총괄해서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말씀 가운데 창조된 존재 세계가 나왔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역사가 전개되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인간이 나오고, 타락 내막이 나오고, 구원의 진리가 나왔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 자신의 산물로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 일반 세계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상,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언어,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은 궁극적으로 구속사 성취의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역사는 구속사 성취수단으로서 잠정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가득 차 있는 진리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자, 섭리자, 유일하신 구속자를 증거하기 위해 주셨다. 성경은 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구속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성경중심의 진리를 보여주는 점진적인 계시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이 중심축으로 계시하는 것은 역사, 예언, 상징과 표상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계시는 영원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역사세계 무대에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피조세계는 역사의 무대로서 하나님의 위대한하신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역사는 사탄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펼쳐 가는 구속역사의 광장이다. 그래서 택자 구원 완성이라는 구속사 성취의 목적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의 몸된 교회운동을 통하여 전개해 나가신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구속사 성취의 기관으로서 존재함으로 위대한 말씀(성경)운동을 통하여 전개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석교회



성흥경 목사
예장웨신총회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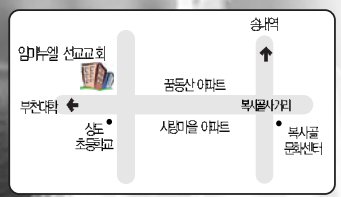
담임 : 성흥경 목사(웨신, 총회장), 성용구 목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599-4
☎031)204-5580

근하신년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마구 상동 420-1

근하신년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정안교회”



새 생명의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천체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복마를 느끼는 곳에 찾아옵니다.



담임목사 장 승 현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안교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mmail.net H·P : 011-9027-9712

2010년 화합과 부흥과 성장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지구촌교회

담임 이홍규 목사(웨신총회 부총회장)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322-33
전화 02)845-3376, 848-3376

총회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장창운 목사(경천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 열린찬양교회
전화 010-5678-9950

예수교장로회 남부교회

노회장 조광표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
전화 061-274-1808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동교회

노회장 정규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77-10(206호)
☎ 010-3136-0697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교회

노회장 박영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번지
☎ 011-364-4280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교회

노회장 송주창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신화1리 1071-1
☎ 031-356-3997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성교회

노회장 김태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25-9
☎ 011-710-1770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인교회

노회장 김승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1-1 (보경빌딩2층)
전화 010-2972-7859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교회

노회장 장창운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
☎ 02-862-3181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교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7층
☎ 010-4436-7060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교회

노회장 이병만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44-3 2층
☎ 010-3350-2155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노회장 허성인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76-5
☎ 010-4270-3462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교회

노회장 이기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20-46
전화 02)804-4486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교회

노회장 김준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9-12
전화 010-4166-2307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교회

노회장 김영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7-35 한양빌라7동201호
☎ 018-282-0460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교회

노회장 고영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44-107
☎ 011-9115-6461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교회

노회장 손찬한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 강서구 화곡8동 49-57 성은빌라402
☎ 011-497-4577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교회

노회장 하중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7-23
☎ 010-2740-1571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

노회장 전명철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97-2
☎ 010-4945-3927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교회

노회장 정승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2836W. 8th St. #101 Los ANGELES ca 9005
☎ 213-365-2915 / 213-200-2592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이재갑 목사(본지, JTN방송 운영이사)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50
☎ 02-938-3521 / 016-228-3521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교회

담임 전현구 목사(본지, JTN방송 상임이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91-7
☎ 041)356-0688 / 019-410-0688“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

담임 전현구 목사

웨신총회 감사

충남 당진군 고대면 용두리 512-4
☎ 041)356-0688, 019)410-0688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65-2
☎ 031)714-1426, 7236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석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담임 장창수 목사

부목사 전정우
안수집사 윤김이조차경정
홍문영한석현문

말씀으로 무장화!

기도로 능력화!

생활로 향기화!

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51-1

Tel : 031)373-1151, 377-9372

FAX : 031)372-2583

예장합동 총회장 “예배 때 댄스, 뮤지컬, 힙합 등은 잘못”

예장합동 총회장이 이례적으로 담화문을 내고 교단 소속 교회 및 성도들에게 교단이 정한 ‘예배모범’에 따른 주일성수 및 주일예배 사항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예장합동 서정배 총회장은 지난달 9일 ‘주일성수와 주일예배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은 우리가 다같이 지키기로 하고 제정한 것으로, 신앙생활과 예배회가 규범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몇몇 교회들은 총회가 제정한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주일은 헌법적 규칙을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하며, 주일예배는 예배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오늘날 주일예배가 많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예배를 말하면서 전통적 예배의식을 전면 부정하고, ‘어떠한 형식에도 메이지 않아야 하고, 의복은 편안하게 하고, 일주일에 어느 한 날 예배시간에 참석하고 헌금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총회장은 문제시되는 행동들로 “주일날 교회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하는 것, 찬송이 무시되고 설교와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지속적인 리듬 음악인 현대복음송을 영광적으로 부르며 감정적인 흥기가 고조되어 박수치고 춤추고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설교 중이나 특별찬양이 있는 후에 박수를 쳐서 그런 사람을 기리는 행위, 예배를 마친 후에 ‘영광의 박수’라며 사람에게 박수하듯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린다고 하여 박수를 치는 것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서 총회장은 “설교 시간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많이 강요하는 것, 주일예배회에 목도가 없는 것, 신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것, 예배 때의 워십댄스, 현대무용, 뮤지컬, 힙합 등도 문제를 삼았다.



▲예장 합동 서정배 총회장

충남 성시화를 위해 힘찬 결속, 다짐

충남성시화운동본부, 15시군 본부장 회의 갖고 신년 사업 확정

충남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 오종설 목사)는 18일 오전 11시 홍성제일교회(담임목사 오종설)에서 15개 시군 본부장 및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신년 사업을 확정했다.

이정팔 목사(아산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황규운 목사(금산 본부장)의 기도, 조문현 목사(예산 본부장)가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본문으로 “절친 명이나 남겨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교단과 지역을 뛰어 넘는 운동이다. 정치색을 뛰어넘은 불씨를 가진 운동이다. 한국의 소망은 성시화운동”이라고 말하고 “충남 성시화를 위해 숨은 7,000명



▲충남성시화 운동본부사무총장 오종설 목사 우측

의 사람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국 성시화 본부의 부흥을 위해” 지역장로(태안 사무국장), ‘충남성시화운동본부의 부흥을 위해’ 전종서 목사(보령 사무국장)가 기도하고 박성용 목사(천안 본부

본부는 백승언 목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대표본부장을 내년 2월 경에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복음화를 위한 간담회,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기도회, 제3회 워십경연대회, 지역별 도시전도훈련, 성시화대회, 성시화신문 발행, 임원 연수 등 사업을 확정했다.

한편 지역별 보고에서는 최태순 보령 본부장은 “보령 선교대학을 개강해 4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했다. 매 기수 100여명씩 전도훈련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천안성시화운동본부장 박성용 목사도 “8주 코스의 전도대학을 개강해 지금까지 4기를 배출했다. 매주 금요일 6시 30분 천안 성시화를 위한 기도회, 천안성시화운동본부 주최 축구대회 개최”의 사역을 보고했다.

제후사 뉴스파워

- 예장합동 서정배 총회장 담화문 발표 내용 -

주일성수와 주일예배에 대한 담화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교단 산하 교회와 300만 성도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일예배를 우리 예배모범에 따라 드리도록 교단산하 노회와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근간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해주기 위하여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 곧 신앙생활 규범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 원리에 따라 총회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17년 9월 1일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책을 번역하여 총회가 작성한대로 편찬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여 우리 교단의 헌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헌법책에는 신조, 대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교회규칙, 예배 모범 등이 있습니다.

헌법적 규칙은 제1조에서 13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조는 교인의 의무, 제3조는 교인의 권리, 제4조는 주일 예배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모범은 제1장에서 제18장으로 되어있는데 제1장은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말한 것이고 제2장은 교회의 예배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적 규칙 제2조에는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교회의 교인으로 성일(聖日)을 범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제4조에는 조용히 목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하고,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하고,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모범 제1장에는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종일토록 거룩히 지키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

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하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 출입할이 율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예배 시간은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아 단정하고,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콧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결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고,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고,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은 우리가 다 같이 지키기로 하고 제정한 것으로 신앙생활과 예배회가 규범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은 총회가 제정한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헌법적 규칙을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 시장을 보고 사업을 하고,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종일토록 거룩히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면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도록 해야 하였습니다.

주일예배는 예배모범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가 많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예배를 말하며, 전통적 예배의식을 전면 부정하고, 어떠한 형식에도 메이지 않아야 하고, 의복은 편안하게 하고, 일주일에 어느 한 날 예배시간에 참석하고 헌금만 하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니게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회에 찬송은 무시되고 설교와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지속적인 리듬 음악인 현대복음송을 영광적으로 부르며 감정적인 흥기가 고조되어 박수치고 춤추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성일이므로 율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나8:9).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중이나 특별찬양이 있는 후에 박수를 쳐서 그런 사람을 기리는 행위와 예배를 마친 후에 ‘영광의 박수’라고 하여 사람에게 박수를 하듯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린다

고 하여 박수를 치는 것은 성경과 예배 모범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언제나 설교입니다. 설교에서 복음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구속의 도리, 복음의 핵심, 죄를 책망하는 회개, 성도들의 고난과 인내, 성별, 사탄과의 영적전투 등을 전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많이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예배회에 목도가 없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가 없는 것도 잘못입니다. 예배모범에 주일 예배회는 조용히 목도로 예배를 시작하라고 했고, 축도로 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고 했습니다(신 32:7).

침회의 기도도 회개의 기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침회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과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부처·보살 등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요 천주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맞게 자기를 괴롭히므로 그 죄를 갚는 명로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회에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모든 교회는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해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고백이요, 동시에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요약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기혼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워십댄스, 현대무용, 뮤지컬, 힙합(hip-hop)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춤추며’라는 말씀은 구원의 감격을 몸과 영혼에 넘치는 총명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외적 표현일 뿐 구약시대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 신약시대의 예배, 그리고 기독교 역사 2천 년 동안의 정통교회 예배의식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법의 준수는 그 나라의 문화의 측도(測度)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지키기로 하고 제정한 교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측도(測度)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300만 성도는 물론 신앙을 같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서정배

대한예수교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말씀이 율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믿음

하나님이...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담임 고성규 목사

교회약도

신진동

수인산업도로

시흥시청

소재중학교

다니엘교회

은행동 250-1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 원로목사 : 이 철 재 감독 (Bishop)

• 담임목사 : 이 정 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041634-0441 (사무실)
041633-9146 (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김동락 목사

문의: 031) 968-0199

교역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서동 710번지



담임 현 병 우 목사
· 임마누엘신교회
· 본지 부사장

구원론 ⑦ 예수님의 보혈 Ⅲ

요19:33-3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 온~세상의 모든 저주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그리스도 주님의 물(생명수)과 피(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

다.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구원론 서두에 말씀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그 피(보혈)로 이루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받기에 너무도 쉽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하여 너무도 크신 은혜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45:13, 롬4:1-8, 요3:16, 요1:12 장27에 하나님께서 흠으로 지으신 아담이 장2:17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원죄이며 롬5:12-15 또한 태어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생각으로 저지르는 모든 허물을(막7:20-23) 세상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그리스도께 서(마20:28, 요10:10),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요1:29),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물(생명수)과 피(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요1:12, 롬10:9-10)

장217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는데 악한 뱀(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를 먹은 즉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하는데 또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담을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장3:21에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 명하십니다. 짐승에게서 가죽을 벗기려면 죽어야하고 죽이면 피가 흐르고 가죽을 벗겨도 피가 흐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약1:15) 아담을 살리려면 아담의 피대신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 하기에 짐승의 피를 대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고전5:7 세상죄를 모두 지고가심)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요1:29 예수님을 예표한 양이 되셨습니다.

장3:22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생명) 악(사망)을 아는 일에 우리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심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그 후손들인

류파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 받은 땅과 그 땅의 모든 피조물 장3:17-18을 구원하러 오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 그 위격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예표하신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실 때 까지 아담의 죄는 짐승의피로 대신하게 하였고 지어 입으라 하신 옷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로 회개 할은 성도들의 세마포 환옷을 예표 하셨습니다. (계7:19-17, 롬196-8, 롬22:11-14)

이제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히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라 하심은 아담의 죄는 후손된 우리에게 유전되는 원죄와 (롬12-14 고전5:22) 또한 태어나서 저지른 모든 우상숭배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인한 허물(롬3:25, 막7:20-23을 심판하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 하심으로 짐승의 피로 육신의 죄를 대속케 하신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 알려 주셨습니다. 히9:22-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17:11-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너희가 짐승의 피를 단에 뿌려 나로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라가 아니고 내가 이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반제물로 단에 곧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다는 약속이며 히10:5-7, 히13:10-12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요1:1-4, 요6:63) 이 땅에 오시어 장막을 치사(요1:14)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서(히10:10-14)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의 피를 약속하십니다(요17:3, 요일5:11-12, 5:20)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롬5:12-14)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롬5:15-19) 롬12:1-14에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려주셨는데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양을 취할찌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인 한사람 한사람 모든 사람이 어린양의 피 즉 예수그리스도 주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들까지 구원 받는것이 아니요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버지가 구원 받는것이 아니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 받는것이 아니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골1:1-32 롬18:1-24)를 행한자는 살고 범죄한 영혼만 죽습니다) 즉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죄나 조상들의 죄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주님의 보혈의 강에서 마음껏 해임쳐 보도록 하겠습니까. 모든 영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박영남 교수 칼럼

박영남 목사
세계선교사 협회 G.M.C 총재
건국대학교 미래자성교회 교수(본지 논설위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

(창 1:5)(엡 4:22-24)(고후 5:17)(골3:10)

1,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기울어가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글로벌의 경제파탄과 신종 인플루엔자 등으로 어수선한 한해였다. 겨울은 죽은 자의 계절이면서 살아남은 자의 계절이기도 하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 겨울을 오래 견디고 살아남은 자가 새봄에 새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남은 Zaremanits의 사명은 세 가지다. 역사의 종언이면서 종자, 씨앗이고 새로 농사를 지을 농사꾼이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 봄과 여름이 나무들이 위로 자라나는 성장의 계절이라면 겨울은 나무들이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숙의 계절이다. 나무에게 겨울이 없으면 아름다운 무늬도 단단한 재목도 될 수 없다. 로마서로 아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다. 끝이면서 새로운 시작이요, 들어가는 입구이면서 나가는 출구요, 어둠이면서 밝은 빛이요, 죽음이면서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양면성을 의미한다. 1월 January는 두 얼굴의 신, 아누스-아누아리스에서 나온 단어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의 출발점stating point은 한해가 끝나는 종점ending point, 12월과 등이 붙은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해를 마감하는 결산의 의미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준비를 예고한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서의 시간은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다. 세상의 시간과 순서가 다르다. 조석朝夕이 아니라 석조夕朝다. 창세기 1장의 창조철학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우리말에 ‘월부지節不知’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아직 철이 안든 자를 말한다.

2, 하나님의 때 Kairos, 25시’에 세워진 선지자들
1)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는 “25시”에서 한 시대Kairos 역사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은 남은 Zaremanits로서 하나님의 때Kairos를 알리는 “집수합속의 흰 토끼”와 같은 존재다. 세계 2차 대전통을 통해서 저 잃어 무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인공의 눈, 그의 안경lance를 통해서 한 시대가 기울어가는 종말론적 인간악을 비라본 역사의 관찰자로서 선지자적 사명mission을 맡고 있다.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의 와중에서 집수합은 몰속에서 몇 시간을 숨어서 향해 하다가 산소공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한번씩을 위로 올라와야 한다. 그러나 적의 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집수합의 산소결핍의 위기를 알리는 예고자 역할을 하는 것이 흰 토끼다. 산소가 모자라 흰 토끼가 쓰러지면 그 후 7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죽는다. 이처럼 흰 토끼는 종말을 예언하는 선지자, 예언자다.

2) 예언자는 세 종류가 있다. 새벽에 우는 닭은 어둠속에서 조급한 잠고 기다리던 새날, 새아침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빛을 예언하는 새다. 첫 번째 예언자는 희망과 새아침을 예언하는, 절망과 어둠에 한숨짓는 이들에게 희망을 예고하는 희망의 예언자다. 그리고 석양 논바닥에서 우는 뜰복이는 조

급있으면 어둠 밤이 올 것이라는 심판과 어둠을 예언하는 새다. 이처럼 두 번째 예언자는 타락과 부패, 전쟁과 악으로 종말을 향해 치달는 한 시대에 심판과 경고로 예언하는 예언자다. 세 번째는, 한 밤중에 우는 소쩍새는 온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데 파수꾼처럼 홀로 깨어 우는 새다. 세상이 때를 모르고 술에 취해 항락과 방탕에 취해 쓰러져 잠든 세상을, 이리다가는 적들이 쳐들어와 한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잠을 깨우는 파수꾼 같은 예언자다. 이 시대, 하나님의 때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깔고 닦은 성령의 언어로, 때로는 빛과 희망의 닭 울음소리로, 때로는 어둠과 심판의 뜰복새 울음으로, 때로는 잠을 깨우는 파수꾼의 소쩍새 울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때 Kairos, times, 하나님의 자리space and situation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mission을 사는 이유일 것이다.

3, 하나님의 때Kairos, times를 모르는 월부지節不知 세상, 월부지 인간들

1)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때”를 분별하느나, 못하느냐, “미래”를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이다. 복이 있는 나무는? 시절時節을 따라? At the right time - 과실果實을 맺으며(시 1:3) 앞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열매 맺어야 할 때? (마 21:18-22)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쳐죽일다. 지혜로운 자는? 신랑이 올 때? 를 예측하고 기다리며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부재중? 주인이 올 때, (마 25:1-30)까지 주인정신을 가지고, 맑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 일을 해서, 그 열매들을 주인 앞에 내어 놓고 주인의 칭찬과 상을 받는다.

2) 인생의 성공 자와 실패자,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의 구별은 “때”를 읽는 눈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와 결단, 그리고 소망을 꾸꾸며 오래참고long suffering 기다리는 것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하다. 골리앗과 다윗은 골리앗이 강하다. 사울 왕과 다윗은 사울 왕이 강하다. 그러나 이긴 자는 약한 다윗이다. 미디안 군대 135,000명과 기드온의 300명은 미디안군대가 강하다. 그러나 이긴 자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바알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사람은 바알 쪽이 강하다. 그러나 850:1의 대결에서 이긴 자는 엘리야다. 바로, 준비된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Kairos, times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자를 쓰신다. 이것이 하나님나라의 법칙이다. “밝은 불빛”만이希열은 아니다. “어둠”을 견디는 산고의 인내가 희망이 된다. 새날을 준비하며 빛을 예고하는 선지자, 닭 울음소리를 우는 - 희망의 선지자가 필요한 때다. 불나방은 불빛이 죽음의 미끼다. 목표와 목적이 있는 불빛, 살리는 빛이어야 한다. 맹목적 노력이나 속도가 아닌 “목표와 목적”있는 준비와 달려감이다. 이것만이 희망이다. 한밤중에 잠을 깨우는 파수꾼 - 소쩍새 울음을 우는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송구영신, 목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할 의미는 무엇인가? 구수를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새사람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한다. 변화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는 Change up- up gradet. 인간은 원래 미래지향적인 존재다.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늙은이는 과거에 살고 젊은이는 미래에 산다. 유대인은 과거의 실패,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은 하되 집착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송구영신의 진정한 의미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사람이라고, 너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땅의 길을 들고 돌아 압박강에 이른 아홉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브니엘의 새아침을 맞듯이 목은 해를 보내고, 새롭고 소망 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 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7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 큰 돌림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3회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청년예배
각구역예배	각 구역별 자정시간	각구역별 요구장	매일 다지각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구역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구역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구역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구역	중학생 및 통영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구역	고고생 및 통영연령
청년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이상 미혼



대광교회 담임 염영수 목사

451-061 안양시 동안구 권양동 1409-10
TEL. 031-384-6826

서울예일신학 (시명자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운영

www.syeil.com

전화 02)2293-0045
H·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정리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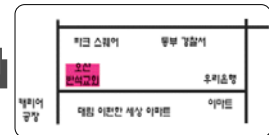


담임목사 : 김봉주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WA영어묵	오후 1:00(토)
알파과정	오후(주일)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찾아오시는 길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축복 [전도전중 말씀전중 독서전중] 특별집회

부흥회+전도전회+재직세미나+교사세미나+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징

- ♡ 확실한 동기부여
-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운 갖게 함

주관: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지문의: 041)904-0675

011-9119-7661(전통)



전도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전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초청
※ 전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전원으로 강사를 드립니다(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목회단상 ①

하나님의 신호



조영길 교수
· 백석문화대학
· 본지 논설위원

지난해 2월 7일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이며, 휴스턴대학 교수인 피터 비숍 박사가 한국에 와서 세종로 포럼과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 비숍교수에게 기자들이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미래학이 왜 필요한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나? 미래 예측이 가능한가? 등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숍교수는 미래예측은 예언이 아니다. 짐작이처럼 미래를 특정한 하나로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미래학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며 내 눈에 들어온 부분은 이것입니다.

기자가 9·11테러나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을 때,

비숍교수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미래학자나 관련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 같은 사태를 예측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든, 어떤 경우도 미약한 신호가 있다. 9·11테러를 예로 들자면 당시 여객기 조종기구를 배우려는 아랍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착륙 기술은 필요 없으니 조종 기술만 빨리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비행교관들은 이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FB에 신고했지만 묵살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기고 있는 금융위기도 그간 미래 학자들이 수차

레 경고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비숍교수는 국가 지도자나 관련정부기관들이 이런 미약한 신호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비를 내리게 하는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대결 장면의 승리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열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가 7번까지 다

시가지라고 합니다. 7번째 가서 보고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에 보면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손만 한 작은 신호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기도할 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를 때,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물론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일을 봉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지 맙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행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 고목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있다. 60대에 주 말동산을 시작한 노정치인이 젊은이 못지 않은 심폐기능을 보유했다고 건강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생각난 말이다. 물건은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진다. 반면에 인간의 몸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고 유연해진다.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체의 무한한 신비가 숨어 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신체적 적합성(Physical Fitness)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보통 힘으로 표현되는 "근력"과 스테미너로 표현하는 '심폐기능', 그리고 "유연성", 이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의 몸은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세가지는 모두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충분히 얻어질 수 있다. 다만 육체적 활동이 거의 없는 정신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운동을 통해 부족한 신체활동을 보충해야 한다. 근력을 위해서는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권할만하고, 심폐기능을 위해서는 걷기, 조깅, 수영, 등산, 줄넘기가 좋으며, 유연성을 위해서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가 바람직하다.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세가지 요인을 골고루 활성화시켜야 한다. 스테미너를 위해서는 먹는 것에만 의존하는 풍토는 과학적 진실에 기초

황성주 박사의 "성경 건강학" ⑬

쓰면 쓸수록 튼튼해 진다!

한 건강행동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스테미너는 먹는 것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동물성 식품은 식물성 식품과 달리 일시적으로 열량을 넘어서며 인체에 힘을 공급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 뿐이다.

스테미너를 얻으려면 위에서 열거한 운동을 통해 심폐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심장의 혈액방출 능력과 폐활량이 곧 스테미너의 원천임을 계몽시켜야 할 시대가 된 것 같다.

신체의 모든 부분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진다. 야구 선수의 왼팔과 오른팔을 비교해 보라! 두뇌 건강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쇠화해 두뇌건강도 전적으로 그 활용도에 달려있다.

인간의 사고기능, 분석기능, 통합기능 등의 지적능력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쓰면 쓸수록 끊임없이 상승되어 간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지적능력이 쇠퇴해 가는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영적 건강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말

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랑해 본 사람만이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극한 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흘러 나오게 된다.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의 근육, 믿음의 근육, 사랑의 근육, 감사의 근육을 계속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쇠화하고 만다.

우리는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감으로 "영적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강에 있어서 중간의대란 있을 수 없다. 상승이 아니면 하강이 있을 뿐이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속도는 줄어든다. 되고 결국은 멈추고 만다. 현상 유지라는 것도 어느정도 페달을 밟으며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녹슬 듯 사람의 인체도 사용하지 않으면 노화현상이 빨리 나타난다. 더욱이 장기간 방치해둔 기계는 "사용불가"의 판정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몸과 마음을 방치하는 "심신 불사용 죄"를 범하고 살아 감으로 "사용불가"의 판정을 받지 않도록 건강의 청지기로서 준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영적 부분과 함께 우리들의 육체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건강칼럼 지난호에 이어

우울증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 V



김주원 박사
본지 상임운영이사

죄가 주는 오염력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있는 죄성의 열매들이 현실을 살면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삶의 열매들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삶의 갈등들과 구조 혹은 그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죄책감들의 열매는 곧잘 우울증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성경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건들이고 현상들이다.

실제로 사건의 문제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들을 성경속에 비추어 보면 성경과 역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병명(name of disease)을 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죄(sinful nature)라고 명명을 한다.

성경속에 나타난 엘리야의 경우도 그가 사는 삶 속에서 이세명의 위험 앞에서 행했던 행동들은 우울증의 전조현상 혹은 우울증과 비슷한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죄된 인간의 속성 혹은 죄성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못 믿었거나 하는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잘잘 못을 따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엘리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다.

신약성경에서 엘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엘리

아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엘리야는 권력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신약의 엘리야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은 권력자의 비리와 부정 그리고 음행한 연고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을 했던 사람이다. 현재의 아내를 취했던 음란한 사건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대항했으며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도 세례 요한이 무서워 했거나 도망을 쳤다는 기록이 있거나, 권력 앞에서 죽기를 자처했다는 기록도 없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 보다 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크게 쓰였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 볼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고 계신 리모트 콘트롤에 의해 조정되어지고 움직여지는 로봇과 같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감옥속에서도 당당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도망치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신앙의 깊이나 열심보다는 개인의 삶의 모습과 패턴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본질을 이해 할때 이 두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오랜 감옥생활 속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메시아 이심에 대해 외구심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확신이 없어서 우울하고 조급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정신과에서 말하는 의부증이나 의처증 혹은 남을 의심하여 견딜 수 없는 조급함으로 오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의 경우에 대하여 예수님의 메

시아 여부를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다만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또 그러한 그의 열망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동기가 되기도 했다. 작은 의심 혹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과연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병의 영역에 둘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죄인 된 인간의 죄성에 원인을 둘 것인가는 스스로의 믿음에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중에 「심리적 요인」을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상담가들은 부부/가족간의 사별, 불화, 고부간의 갈등, 자식 문제, 실직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심리적 요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남편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후에 혼자서 느끼는 공허감과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자신이 우울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생활이 너무 편해서 별 쓸데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주는 남편으로부터 느끼는 괴리감 등이 큰 심리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빈둥지 중후 군(자식들이 성장하여 독립해 감에 따라 느끼게 되는 공허감과 활동적으로 사회 생활하는

남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 등의 증상 등을 말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러한 심리적인 원인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평범한 삶의 모습이나 증상들이 대부분이다. 가족들을 사별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으면 슬픈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 속에 오랫동안 빠져있거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실직 등의 이유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당신은 우울증환자요 그러하기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병원에 보내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정신병 환자가 된다.

오히려 교회는 "당신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라보시오." 그리고, 교회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연구하면서 함께 이러한 시간을 넘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성도를 정신병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교회 리더십의 판단에 달려있다. 교회에서 1년 365일 계속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이나 믿음은 과연 위에서 말하는 심리적요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 정말로 정신과 의사와는 말하는 정신병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도 감히(?) 견딜 수 없는 의사들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말인가?

와 보라! 영광제일교회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목요 특별문사집회

강사진 조경두 목사 | 이평해 목사 | 김진호 목사 | 송미순 목사
말씀, 찬양치유역사, 우울증, 난치병, 귀신축사, 사탄, 예언 등



강사 송미순 목사

1.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난다
2.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
3. 신령 영혼 인격 물결이 열려지는 축복
4. 각종 치유역사 역사의 회복의 역사
5. 모이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6. 믿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지금전화 한통화로
인생이 바뀝니다~



대한예수교 영광제일교회

461-1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Tel. 031-756-9826(교회) Mobile. 010-8200-7791

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복수



- 부목사 : 김종성
- 전도사 : 최학식
- 원로장로 : 14명 (김정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 원로장로 : 14명 (김정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 이사회장 : 이병길, 김진호
- 장로 :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신앙조성 :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지침 :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이 :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구약성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다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화 : 455041-55-000 317

예배	시	구	교회	시
대예배	1부	주일오전 9:00	유치부	주일오전 11:00
	2부	주일오전 11:00	유년주교	주일오전 9:00
주일오후	주일오후 2:00	학생회	주일오후 9:00	
수요저녁	수요일오후 7:30	청년·대학부	토요일오후 6:30	
새벽기도	매 일오전 5:00			
심야기도	금요일오후 10:00			

TEL: 041) 865-1301

FAX: 041) 864-8255

교역자실: 041) 865-1302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광리 6-1



예배모임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분	시	구	시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년동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종교동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요일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 031) 656-5830

H · P 010-8585-9137

대한예수교
장로회

www.haeksim.net

Tel. 02) 430-9107

Fax. 02) 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선 목사

예배안내

기관	시	장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안내

기관	시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2교육관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 가정예배 ■



소진우 목사

서울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제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찬양 찬송가 511장 성경 마태복음 11장20절-24절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의 체험은 믿음을 증가하는데 있어 유익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을 체험했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기적을 체험할때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에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예수님의 마음

찬양 찬송가 507장 성경 마태복음 11장26절-30절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잘 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땅을 데고 내게 배우리"고 말씀합니다. 다시말해서 마음에 따라 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짐일 지라도 불평의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지만 아무리 무거운 짐일 지라도 기쁨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가벼워 진다는 것입니다. 즉 해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율법을 넘어 은혜로

찬양 찬송가 403장 성경 마태복음 12장1절-8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은 사람이 무엇을 했다 고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의인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 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아니고 노력한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의무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습니 다. 본문에서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기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무릎으로 말하고 무릎으로 일하자

찬양 찬송가 484장 성경 마태복음 12장9절-21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삼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만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을 모아 서로 의논하기 바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논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때 마다 생각과 의논이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의논만 하지 말고 무릎으로 말하고 무릎으로 일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자

찬양 찬송가 342장 성경 마태복음 12장22절-37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 멀고 병어리가 된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린자의 행위를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들도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한 겉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2천년 전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고 예수님을 통해 듣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어쩌면 우리들도...

찬양 찬송가 342장 성경 마태복음 12장38-45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린자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기적을 보았습니 다. 그들은 귀신추방이 메시아되심을 완전히 보증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적을 봐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표적만을 더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정 눈 먼 자요 듣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버린 상태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바로 열어 주면 다시 오실 때 까지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찬양 찬송가 344장 성경 마태복음 12장46절-50절
뉴스를 보면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비리문제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통

령과 가까운 사람을 보면 부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나라

찬양 찬송가 245장 성경 마태복음 13장1절-23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같아 보일 지라도 점차 점차 확장되어 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씨앗으로 확장되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가정들 역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찬양 찬송가 245장 성경 마태복음 13장24절-4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되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곡식을 심으면 추수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 추수할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반드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곡식이 되어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다면 가라지가 되어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수 있다

찬양 찬송가 544장 성경 마태복음 13장44절-46절
본문을 보면 어떤 이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말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과 진주를 사들 하나님 나라의 나라역시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기적 같은 능력이 없어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유하며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놀라지만 말고 믿는다면

찬양 찬송가 397장 성경 마태복음 13장53절-58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하고 매우 놀라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기는 했지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많지 않음을 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다시말해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도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 오늘 우리들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놀라지만 말고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찬양 찬송가 507장 성경 마태복음 14장1절-12절
본문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의 죽음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욕심이 인간 역사에 여전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왕이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세례요한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결국 맹세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뺏기지 맙시다.

찬양 찬송가 86장 성경 마태복음 14장13절-21절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인 사건으로써 유일하게 4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삶의 희망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주셨던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떡과 물고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지 맙시다

찬양 찬송가 480장 성경 마태복음 14장22절-24절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은 큰 무리들로부터 대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아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적 이후에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역시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문제가 해결되어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생강차와 부침개 드세요.”

- 매 주 월·수·금 서울역 노숙자 돕는
- 행복선교회 이대근 목사 부부



이대근 목사의 사모 정순금 목사(좌측 흰 뿔모자 쓴 이)와 파전을 끓이는 성도들 ©뉴스파워

매 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3시 서울역 우체국앞에는 수십명의 노숙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국물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이날은 기다려지는 날이다.

행복선교회대표 이대근 목사, 정순금 목사가 따뜻한 생강차와 함께 현장에서 부침개를 붙여 나눠주기 때문이다. 행복선교회를 조직해 8년째 서울역 노숙자 돕기 사역을 하고 있는 이대근 목사와 정순금 목사 부부는 은평구에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오던 중 재개발 사업으로 임대 건물에서 밀려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역 노숙자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다.

섹소폰 연주자일품인 이대근 목사는 정순금 목사와선교회 회원들이 차를 나눠주고, 부침개를 붙여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동안 섹소폰으로 찬양을 한다. 섹소폰 연주에 지나가는 스님도 돈을 주고 가는 등 반응이 좋다. 아들 이진형 씨(소망교회 교육전도사는 올해 장신대 대학원에 입학해 부모의 사역을 돕고 있다. 정순금 목사는 '아들이 장신대 신대원의 배려로 전역 장학생이 됐고, 소망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대근 목사 부부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생활하면서 신학을 한 사람도 있다.”며 “노숙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힘이 닿는때까지 이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column

동행

앞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선 아내? 배낭과 어깨 가방, 찬합 도시락까지 아내에게 맡기고도어늘하고 더딘 남편의 발걸음을알고 보니 아원 남편의 몸이 조금 불편했다.겨우 손바닥만한너비의 좁은 다리.

강 건너 자신들의 하우스밥으로 일을 떠나면 그들은 말했다. 아주 어릴 때는 이보다 더 좁은 다리가 있었다고.한겨울에는 표면이 꽁꽁 얼어서 더 조심스러웠다고.

터벅터벅 독을 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푸르틴 날은 가고 늙어가지만 그래도 동행이 있어 행복하다. 때로 앞서 가 줄 사람이 있고,때로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으며,때로 안부를 물어 줄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부디,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글/사진 박동식

피종진 목사 1월 국내·외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 1(금) 오후 1(금)~ 2(토) 3(주)~5(화) 6(수) 오전 7(목) 저녁 8(금)~9(토) 10(주일) 오후 11(월)~13(수) 14(목) 오후 14(목)~16(토) 16(토) 오후 17(주일) 오후 17(주)~20(수) 21(목)~23(토) 24(주)~27(수) 25(월) 오후 28(목) 오전 28(목)~30(토)
- 청평 한얼산기도원(원장 이영금 목사) ☎(031)584-1374
진주기도원(원장 김진홍 목사) ☎ 011-228-0631
부천 상동제자교회(김종대 목사) ☎(032)328-0191
크리스천연합신문 신년하례식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축복대성회 ☎(041)852-2211
안양 갈매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나라살리기운동본부(황베로 목사) ☎ 010-6432-2183
인천 삼일교회(박영분 목사) ☎(032)468-3138
부천 축복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부평 새심정교회(나오예 목사) ☎(032)528-9997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장소 : 팽택 성은동산(원장 장재효 목사) ☎(031)611-3397
서울은혜교회(김광신 목사) ☎(02)474-3601
대전중부교회(조상웅 목사) ☎(042)662-9991
주최: 예정총회(합동) 동대전노회(노회장 손동환 목사) 연합성회
구미 선산소망교회(이성순 목사) ☎(054)481-1941
조치원장로교회(박복수 목사) ☎(041)865-1301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주최: (사)순성, 미자립교회 청소년드림캠프
오산리치자살기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031)947-0091
주최: 이웃사랑실천연합부흥협의회(대표회장 정경모 목사)
홍성 상하리중앙교회(박성수 목사) ☎(041)632-7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asca.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교육기관

한기총에 가입된 40년 전통의 예정(위산) 총회인종 신학교

201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장·신학박사 장관섭 목사

- ◆석·박사학위과정은 미국 명문신학대학원 계열 학기 프로그램 연결 (미국 문부성 주정부 대학협의회 인가 대학교)
- 미국 본교와 호주 지역에서 수강
- ◆목회자 특별 장학금 지급

- 모집기간 : 09년 12월 14일(월)~2010년 2월 26일(금)일 7:00
- 원서접수 : 본교 행정실
- 전형방법 : 면접과 서류전형 (신앙과 인격중심)
- 전형장소 : 본교 대강의실5
- 문 의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행정실 ☎02-2691~3920로 문의

재)국제복지선교협회



한국개혁신학연구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158-09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82-3번지 신월빌딩 5층
대표전화 02-2691~3920. 홈페이지 http://reformedacademy.org

사선을 넘어서 17화

“인도해주신 주님 찬양하자”

교육마친후 순회 간증집회

2003년 5월 4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한국 생활의 곁을 떠날 땐 뜻깊은 날이다. 하나원을 나서면서 동생들과 약속했다.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며 살자고. 그리고 몇 분 목사님들의 힘을 빌려 거산교회, 수원화목교회 등 그동안 도움을 받은 교회들을 돌며 찬양간증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부평대영교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일깨워준 교회다. 나와 동생들로 이뤄진 찬양팀이 교회에 간다고 연락하자 교회는 잔치 분위기였다. 정영복 목사님 부부와 장현식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다. 특히 우리가 내몽골 사막에 잡혀서 고생했던 6개월 동안 모든 성도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셨다. 아! 하나님!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증과 찬양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하나님께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뜨겁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거둬 줄 줄랐다”면서 두 눈 가득 이슬을 머금은 장 장로님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집회는 가는 곳마다 감동과 은혜로 넘쳐났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였다. 그러던 중 한번은 한 교회 새벽집회를 마치고 산기도를 가게 됐다. 상큼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던 중 식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곧바로 담담 형사를 만나 식당 자리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급싸라기 땅 서울에서 가게 하나 열기가 쉬운 일이겠는가. 거기다 식당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탈북선배들이 사기 등으로 고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호프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호프집이 뭔데요?”

얼마 지나 담담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호프집이 나왔는데, 난생 처음 듣는 호프집이 뭐가 싶었다. 생맥주집이라는 것이다. 18평짜리 자그마한 가게인데, 상계동 아파트단지에서 있어서 입지조건은 괜찮다는 말에 솔깃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서 7000만원이란다. 도대체 7000만원이란 거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정착금으로 아파트 임대계약하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서 몇 군데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빌려줄 사람이 나타났다. 서둘러 계약을 하고 동생들과 함께 식당 개업준비를 했다. 평양 육류관 라이브 음식점으로 간판을 달아 호프집 간판을 가렸다. 그 무렵 몇 군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기에 응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냈다. 갑자기 유명해진 것이다. 손님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평양냉면, 평양오반 등 북한 고급 음식들을 만들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인산인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정도였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다.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손님들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이제 순탄하게 한국에 정착해 잘 사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국 땅에서 겪어야 할 시련을 예비해 놓으셨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항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항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2~13)

김성광 목사, 박근혜 관련 발언 파문 커져...

최근 한 교계 모임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닭’과 ‘개’에 비유해 구설수에 오른 김성광 목사(강남교회 담임)의 발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전박연대·박사모 등 반발 거세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21’ 주최 송년 구국기도회에 참석한 김성광 목사가 설교 중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날 김 목사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정선에 쫓으면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데, 뒤에 가만히 앉아서 훈시만 하고 있다”며 “용산침자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하고, 이번에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라’는 건 훈시 듣는 소린지 독기 짙은 소린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닭이 새벽에 울어야 사람들이 깨우는 데 대낮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면 어찌해야 하느냐, 집을 지키는 개가 도둑을 보고 짖어야 집안 식구 보고 짖으면 어찌해야 하느냐”며 청중을 향해 “여러분이 잡아먹어요”라고 한 것이다.

이에 전박연대는 김 목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표를 닭과 개에 비유하며 ‘잡아먹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구국기도회가 아니라 망국기도회에서



▲김성광 목사 설교 동영상 캡처

나 할 수 있는 망언이며, 잔혹한 정치테러”라며 김 목사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한나라당 평당원 모임은 지난 20일 강남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김 목사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으며, 24일까지 사과가 없을 경우 25일 강남교회 앞에 모여 구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임을 밝혔다.

김성광 목사 “설교 전체 맥락 봐달라...평소 박 의원 존경”

한편 김성광 목사 측은 설교의 일부 발언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며, 공인으로서의 박 의원을 비판했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김 목사는 지난 21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설교는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분열과 대립보다는 서로가 하나되어 협력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박 의원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과거의 정치적 행보에서 더 발전해 대통령과 총리의 정책에 대립하지 말고 협조하는 방향이 다음 대권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고 육영수 여사의 장녀로서 박 의원을 존경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직자의 설교를 고소, 고발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장차 대권을 바라보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다면 어느 설교라도 국민을 대변하는 소리라고 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5일 예고된 박사모의 시위와 관련 강남교회 측은 23일 <독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약 전박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찾아와 시위를 한다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조치를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천 목사 합동총회 부흥사회 대표회장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흥사회는 유일천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취임 감사예배를 지난 12월 7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드렸다.

대표회장 유일천 목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정보화시대에 육은 점점 극성으로 치달고 영은 점점 침체되어 기독교 신앙이 인본주의로 타락 급속도로 부패해가고 있는 이때에 부패된 영성과 교회를 되살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부족한 종이 새로운 각오로 합동총회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 임할 것을 다짐



하고 국내복음은 물론 세계복음화에 앞서는 교단(합동총회)과 부흥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획기적인 영적성장을 위해 많은 목사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사무총장 공동수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박대규 목사가 기도,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총재)가 “그리스도의 증언”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재 최능력 목사가 대표회장 유일천 목사에게 취임패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유 대표회장은 총재, 부총재에게 추대패를 전달했으며, 회장단, 임원에게 임명패를 전달했다.

총재 최능력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취임을 선포하고 유 대표회장의 취임사와 화중총현교회 이효은 목사, 김포 갈릴리교회 김기대 목사가 축사를, 총재 최능력 목사가 격려사를, 이태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칼럼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잘 알고 잘 지내다가 죽음이나 기다리다가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나무라도 심었으면 그 나무가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흔다섯 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아흔다섯 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55p)



— 정수 경영의 지혜 — 88세 생표 박승복 회장의 인생의 성공, 사업의 성공 이야기중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려다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짰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늦어서, 자신이 없어서,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가지 이유와 핑계를 떠올리며 그만둡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95세에 어학공부를 시작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늦어서...라는 생각은 정말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8세인 생표 박승복 회장이 한 일로 모인에서 들은 어떤 노인의 일기 내용입니다.

95세인 분이 몇 년전에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해 아무 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어학공부를 시작합니다. 10년 후인 105세 생일날, 95세 때 아무 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90대의 일본 노의사가 중국어를 새로 배우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 배운 중국어로 중국 현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강연도 했습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정말 없습니다.

소진우 목사 2009 · 2010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열방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2009년 1월

- 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5~8 일산금관교회(주성민목사)
-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 26~30 필리핀선교집회

2009년 5월

- 4~7 에스라선교제자훈련센터(이진희원장)
- 10~13 불철축복성회(예복교회)
- 14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18~20 미쁜교회(이봉현목사)
- 21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
- 25~29 선교지방문 (25·부흥사연수원)

2009년 9월

- 7~11 온누리복음화수양회(엄기호목사)
- 14,18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1~24 교단총회
- 28~3 추석주간

2010년 1월

- 4~7 도곡산기도원(양재원장)
- 11~13 마가의다락방(박보영원장)
- 18~20 신광교회(조효원목사)
- 25~27 천동교회(이래정목사)

2009년 2월

- 2~5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 6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9~11 옥산성결교회(박병정목사)
- 16~18 칠곡연합성회(김성호목사)
- 23~25 소망교회(조성봉목사)

2009년 6월

- 1~4 인천마가의다락방(박보영목사)
- 7~10 새롬교회(김대수목사)
- 11 한빛교회(임선택목사)
- 15~18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2~24 원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009년 10월

- 1 마가의다락방(박보영원장)
- 5~8 열린기도원(정은혜원장)
- 12~13 정기노회
- 13~15 서북교회(배경택목사)
- 18~20 생명의교회(백규식목사)
- 22 서부시찰연합침례(장대환목사)
- 25~28 예광감리교회(류인덕목사)

2010년 2월

- 1~3 한샘교회(천복수목사)
- 8~10 독산교회(김의태목사)
- 15~19 네팔선교
- 22~24 평택중앙교회(김옥복목사)

2009년 3월

-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 2~31 불철축복대심방

2009년 7월

- 3 성소기도원(박정원원장)
- 5~8 새영교회(인영근목사)
- 13~15 신학교세미나.성산교회(김정남)
- 20~22 은현기도원(조은원장)
- 24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2009년 11월

- 2~5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 12 수동기도원(이태희원장)
- 16~20 선교지방문
- 23~25 전국목회자영성대회(유만석목사)
- 30~2 대흥교회(정남기목사)

2009년 4월

-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 13~14 정기노회
- 14~16 이류리교회(이재경목사)
-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김병식회장)
- 27~29 총회임원교육

2009년 8월

- 3~5 마가의다락방(박보영원장)
-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10~13 에비다용담기도원(최민숙원장)
-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
- 23~25 은현기도원(조은)
- 2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30~5 십자가특별기도대성회

2009년 12월

-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 14~17 호산나교회(김영환목사)
- 14~17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 18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 20~23 한미복음교회(신규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무료급식 14년째 '실버타운 사랑의집' 원장 황귀례 목사



▲부평 사랑의 집(황귀례 원장)

노숙인, 치매, 중풍, 노환으로 복지원에 입원해 있는 30여 명의 가족들, 청소년, 가장들을 내 몸처럼 아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황귀례 목사, 전상선 권사(남편)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황 원장은

주여! 저들을 끝까지 도우며 섬기게 하소서,
"40일 급식기도를 세번"

도심 속에 실버타운 사랑의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원장 황귀례 목사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치매, 중풍, 노환 등 노년기 만성질환으로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을 내 부모님을 모시듯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집 노인 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94-6 산곡프라자 3층에 입원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황귀례 원장은 30여 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있다. 황 목사 자신도 어려운 환경,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면서 결심한 가운데 사랑의집 노인복지센터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죽을병에 걸려 많이 힘들었고, 많이 울었습니다. 결국 가사를 다 탕진당하고 망했습니다. 몸은 병들어 망친창이가 되었고, 심한고통 중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병에서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은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급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IMF로 어려울 때 하루에도 수백 명씩 한 끼의 식사를 해결코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지난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이 때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긴 노약자, 노숙인, 병든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랑의집요양원입니다.

● 황 목사님은 그때 열악한 형편에, 건물도 없이 100명에서 300명이 넘는 노숙인들에게 재정이 없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제가 요양원과 무료급식을 동시에 시작해서 올해로 14년째 됩니다. 처음 요양원을 시작할 때 어느 할머니의 다 쓸어져가는 천막집을 빌려 비가 스며들지 않게 비닐을 씌우고 노숙인들과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데려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천막집이 무허가이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세월에 강제로 철거를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때 다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밤을 지새워야 했구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눈물을 쏟아가며 하

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생활이 어려운데 어찌해서 이분들을 내게 보내셨습니까? 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가난한 저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아픈 마음과 고통을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저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보내었노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귀한 생명을 맡겨 주셨다는 말씀에 크게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니깐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부평 사랑의 집(황귀례목사) 사랑나눔 바자회

그런 가운데 14년째 무료급식은 매주 화, 목, 토 3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평구 청천동 사랑의 집(노숙자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14년 동안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평에 있는 외골공원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어 예배와 워십콘서트와 찬양으로 노숙인들과 청소년 가장들을 위로하고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은 독고노인과 불우청소년 50명을 선정하고 돕는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후원금 전액을 부족하지만 전달했습니다.

● 사랑의 집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 때면 40일 급식을 세 번씩이나 하겠다는데, 현재 시설 운영과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힘이 되어 준 전상선 권사(남편)입니다. 직장생활로 받는 급여로는 늘어나는 가족들의 생계비가 턱없이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은 고물상을 하는 것이요, 일자리를 잃은 노숙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심어주기 위해 고물상을 시작했습니다. 전 권사는 열심히 고물과 파지를 수집해서 팔은 돈이 월급보다 더 나왔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무인기 시설에서 2008년 11월에 사랑의 집 복지센터가 개인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비전은 산 좋고 물 좋은 곳, 넓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흡입하면서 종합복지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평 사랑의 집 쉬고 있는 노인들



▲부평 사랑의 집(원장 황귀례 목사)요양중에 있는 노인들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많은 지적과 괴롭음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이곳을 나가면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또 노숙자로 돌아가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각서를 쓰라는 등, 강압적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힘들어서 요양원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40일 급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0일을 마치고 내려와 보니 단기이긴 하지만 정부의 보건복지법이 바뀌어 임대건물의 시설 허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법이 또 바뀌어 15일 이상 시설에서 입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땅 자기 소유, 건물이 있어야 만이 정식 인가가 나며, 게다가 임대 건물은 빚이 없어야 되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사실 한국에 빚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 저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사역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또한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관을 소망합니다. 종합복지관 안에 병원 시설과 혼자 되어 어려움을 당한 분들, 어린이들도 그 가족들과 같이 시설에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꿈대로 이루어지면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노숙자나, 환자들 편안해질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움이 많은 현실, 노숙자가 병들어서 병원을 찾아가면 외면하고 쫓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종합복지관을 허락하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하루 속히 갖는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 031)252-2838 204-2838 010)4423-2838

후원 : 1구좌 월1,000원 이상 자동이체로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120-12-237642

기업은행123-045129-01-015

우체국103317-0118583-12

도심속의 실버타운 노인장기요양(주·야간 및 단기보호) 사랑의 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치매,중풍,노환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년기 만성질환의 이르신을 모시는 사랑의집입니다.

현대식시설에서 가족과 같이 정성을 다해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저렴한 비용으로 모십니다.

입원시설 완비! 오르신을 댁에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인터넷 '인천닷컴'에서 '치매'나 '중풍' 검색 (www.saranghouse.com)

사랑의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94-6 산곡프라자 3층

전화 : 032)525-2838, 204-2838, H·P 010)4423-2838

사랑의집(노숙자쉼터·무료급식)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2-13

전화 : 032)524-6884 팩스 : 032)508-2838 h.p : 010)4423-2838

■매주 화, 목, 토, 3일 동안 14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원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의 집(노숙자쉼터·무료급식) 비록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집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노력봉사:간병 청소, 목욕, 말벗, 급식, 외출통행 등 전문봉사:이·미용, 간호조무사, 의료봉사 등

바울교회 고승곤 목사 한편의 드라마처럼 살아왔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에서 주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큰 꿈을 펼치며 사역하고 있는 고승곤 목사 물에 빠져 죽은 여학생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살아난 여학생이 오늘의 고승곤 목사의 사모...’

성령충만을 외치며 사역에 불타고 있는 열정적인 고승곤 목사. 그는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소재 바울교회를 담임하며 현 마르티스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하다. 고목사는 한때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가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말에 관심을 끈다.



동역자 홍혜선 목사

“저는 사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개신교로 돌아온 것은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자 친구를 사귀기 위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부흥회를 통해 성령체험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41: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함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에 부름을 받고, 이때 하나님 내게 50명의 사역자를 붙여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병을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난치병을 앓았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지요. 회귀병입니다. 순천향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현대에 병은 날씨가 차가우면 뼈와 살이 추축해지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절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는 집안 어른의 묘가 잘못 되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미쳤다는 말을 들어가면서 부친의 민투에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내 병은 그대로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강원도 태백에 있는 도계관광 광부로 일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막장 일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85년도에 난치병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신유의 은사, 투시, 예언 등 능력이 나타났

습니다. 사망에 불탄 저는 86년도에 신학(방배동 총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신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져 죽은 여학생을 붙잡고 “하나님 이 여학생을 살려만 주시면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해 여름수련회를 내장산으로 갔었는데 아이들과 텐트를 치고 있을 때 여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너무도 다급한 일이라서 그 여학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학생을 살려만 주시면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학생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여학생과는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사랑이 싹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태백으로 올라가 도계관광에서 식탄을 채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이 신학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광부의 월급은(85년도)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쌀 한 가마에 만원이었는데, 3년간 참고 돈을 벌면 되겠다는 목돈 마련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인 신학을 안 하자 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버리고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탄광인구를 나서는 데 순간 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두 손을 들고 신학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을 하게 되어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교만. 난치병에서 치료받았

다는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모 기도원 교회담임으로 초빙도 거절하고, 안양에서 안수집사의 딸의 난치병이 차우되는 역사로 개척하자는 제안도 거절합니다. 결국 개척의 꿈이 모두 무산된 것입니다. 이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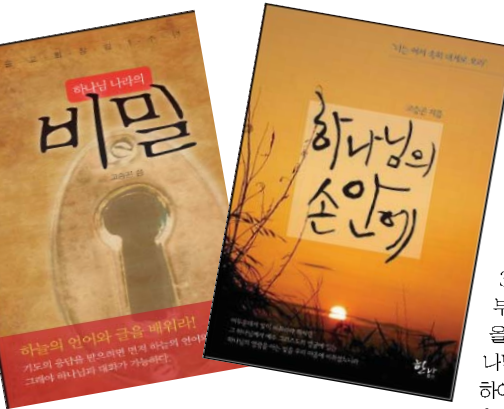
고목사님은 개척의 꿈이 깨어지고 난 후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겪었으며, 병영의 길을 걸으셨다고 했는데,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술집영업부장을 비롯 방탕한 길로 달려갔습니다. 온갖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런 저런 사업에서부터, 여러 신문사 기자로, 건설회사 회장, 강남에서 잡나가는 모음집작사장, 조직에 들어가 해결사로,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20여년의 연단을 통해서 지동차를 폐차하는 교통사고가 4건, 총 맞아 죽을 사건이 2건이 있었고, 이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는 더 끝만도 못하구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교회는 언제 설립하게 되었으며, 근간에 마르티스부흥선교협의회가 모 일간지와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JTNN 방송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크게 활성화 되고 있는데 고목사님은 대표회장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집사로, 홍혜선 목사는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을 때 저를 신학교에 편입을 시켜주었으며, 개척을 하자는 홍 전도사의 제안에 2007년 12월 1일 개척을 시작해서 2010년 1월 현재 목사 2명, 선교사 2



명, 전도사 5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한 바울교회입니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제가 부흥사로 활동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

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은 마르티스부흥선교협의회를 설립케 해 주셨습니다.

행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직”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르티스부흥선교협의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순교자입니다. 마르티스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마르티스부흥선교협의회가 창단된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바울교회로 이미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부흥사 모임도 주변에 계신 분들의 뜻과 권유로 인해 정말 깨끗한 부흥사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마르티스가 창단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교회는 말씀중심으로 집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사 40: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말씀. 로고스의 말씀. 케리그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은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맙니다.

바울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훈련입니다. 그래서 “다바르” 성경 강해를 교회개척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세마나에 참석하신 전도사 신학생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단의 총회장이 두 분, 학장도 있습니다.

역대상 16: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는 우리가 먼저 켜지고 내가 먼저 빛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 사회에 구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변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간에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4:2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교소도가 줄어들어 범죄자도 사라질 것이고 내가 먼저 가면 맙니다. 누구에게 하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먼저 봉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좌우명처럼 가훈이 있는데 “人因成事”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신실한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50명의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주십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간에 “봉은사 피아노 반주자가 저를 만나 변화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 홍혜선 목사는 고목사님이 30여 년간 함께한 길, 연단의 길을 걸었는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목사님입니다. 오한혜슬레가 뜨겁다는 것 때문에 쫓겨났듯이 고목사도 뜨겁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100% 순종하며 섬길 것입니다.

또한 원장 김수아 목사는 고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있는 목사님 믿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입니다.

주제

여호와와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삿 13:25).

2010 마르티스부흥선교협의회 신년축복대성회

마르티스부흥선교협의회 조직

성회 문의 010-8019-8008

 고승곤 목사	 이춘식 목사	 고관환 목사	 박모세 목사	 서태섭 목사	 정기남 목사	 한사라 목사	 김수아 목사	 이성숙 목사	 최보라 목사	 이완호 목사	 홍혜선 목사	 김진중 목사	 강연자 목사
 신영희 목사	 박국현 목사	 양해안 목사	 권춘사 목사	 유명영 목사	 정명희 목사	 김진수 목사	 임덕희 목사	 홍헌 목사	 조재성 목사	 정경희 목사	 최미향 목사	 김찬미 목사	 장미진 목사
 신은순 목사	 임주영 목사	 김명애 목사	 김경심 목사	 오자연 목사	 고승곤 목사	 이완호 목사	 한사라 목사	 박모세 목사					

일시 2010년 1월 4일(월) 저녁 8시~1월 7일(목) 저녁 8시

성회 일정 매일 오전 11시, 저녁 8시

장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454번지 사광장로교회

TEL (031)747-0691, (031)732-6363

H·P (010)4498-5556, (010)9262-0583